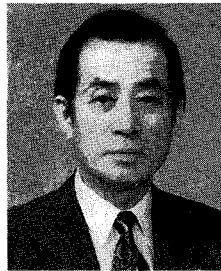


젓소부분

젓소를 개량합시다.



윤 여 창
본회 부회장(창령원 목장대표)

이 원고는 1996년 4월 1일에서 6일까지 (6일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중 “맑아오는 새이집”에서 본회 운영장 부회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내용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1일째 : 우리나라 낙농현황

오늘은 우리나라의 낙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젓소의 수는 55만 3천두를 2만 3천 5백호의 낙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0두미만을 사육하고는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업형태의 낙농을 하고 있는 총 낙농가의 수가 1만 9천호로서 전체호수의 약8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역시 또 규모별로는 70.8%를 점하고 있는

39만 2천두라는 많은 수의 젖소가 부업형태의 낙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의 평균산유량은 5,727kg으로서 아직도 선진낙농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동안에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정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의 평균유량은 7,427kg으로서 일반농가보다 30%가 넘는 약 1,700kg을 더 생산한다는 것은 우수한 젖소로써 개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낙농가가 많은 숫자의 젖소를 키우고 있지 않는 오늘날의 현상에서는 두수에 여념하지 말고 이렇게 개량하는 정신을 가지고 젖소를 키운다 할 것 같으면 이와같이 많은 산유량을 올릴 수 있는 고능력우를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1년에 약20여두에 개량된 고능력우를 생산해서 기르고 있다면 1년에 약1,500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능력우를 작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낙농가의 기본방향이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낙농의 여건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낙농가의 입장에서는 한마리라도 더 개량된 젖소로 육성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UR과 WTO등 여러가지 나쁜 조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하면은 결국은 젖소를 좋은 소로써 개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째로는 사육하고 있는 젖소중에서 암소를 등록을 해야됩니다. 등록을 해서 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그 다음에 등록된 이 암소는 심사를 받아서 그 체형의 형질 중에 단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근친을 피할 수 있는 종모우를 골라서 계획교배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개량된 송아지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송아지를 키워서 산유를 하기 시작했을 적에는 그 능력을 검정을 받고 그중에서도 선발하고 도태해서 고능력우가 비로소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루아침에 결코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과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숫자만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초등록, 본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는데 기초등록이라 하는 것은 부모쪽에 혈통은 전혀 알 수 없는 무적자의 암소를 얘기합니다. 또, 아버를 알고, 어미가 본등록이 되어 있는 소에서 태어난 암소가 혈통등록이 됩니다. 아울러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우가 검정을 받아 능력이 우수하고 체형이 우수한 것을 고등등록우라고 합니다.

2일째 : 선형심사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등록된 암소의 선형심사를 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라 하는 것은 젖소가 암소를 생산하고

난후 일반외모, 유용특질, 체적, 유방기관을 나누어 점수로써 심사를 실시합니다. 첫째는 약 30%의 비중을 들 수 있는 일반적인 소의 외모에서 이 소가 과연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잠재력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형특질이라해서 젖소는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사하며 20%의 비중을 두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젖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료를 먹고 충분히 소화시켜서 거기로부터 자기 몸을 유지하는 영향과 또 새끼를 가질 수 있는 번식과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질, 다시 말하면 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20%의 비중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젖을 많이 낼 수 있는 유방의 전체를, 다시 말해서 유방의 크기, 부착상태등의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약 30%의 점수를 주는 것이 선형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형심사를 받다보면 과연 이 소가 젖을 많이 낼 수 있는 소의 특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살이 많이 찌는 마치 고기소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도태와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은 우리나라의 선형심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종축개량협회에서 매년 미국협회에 한명씩의 직원을 파견해서 심사를 받아서 세계의 공인을 받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재양상의

수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낙농가가 약 2만 3천호의 이상의 낙농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꼭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재에 당국에게 이런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젊은 우수한 사람들을 매년 많은 숫자를 외국에 파견해서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선형심사원으로써 육성해 주어서 우리나라농가가 지역에서 요청할 적에는 수시로 아무때나 응해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의 바램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끝났으면은 이 심사에서는 체형적인 단점이 나오고 이 체형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혈통이 같은 가까운 근친을 피할 수 있는 종모우를 골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든 절차를 거친 기술적인, 과학적인, 학술적인 바탕위에서 만이 협회에서 종모우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때고 우리 농가가 협회에 요청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계획교배 지침서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친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를 골라서 계획적인 교배를 해서 여기서 생산된 암송아지가 과연 훌륭한 고능력우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소가 첫 새끼를 낳고 난 이후 젖이 나올 적에 그 생산된 우유의 능력을 검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1달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받아서 1년의 통계가 나오면 산차별로 능력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선발 또는 도태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

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6,000kg이상을 본다한다면은 10년전에는 43.1%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0년뒤에 지난 95년도 말에는 78.8%라는 많은 숫자의 개량된 고능력우가 출현된 것을 이 수치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4일째 : 생산수명을 연장하자.

어제는 개량의 효과와 검정우의 고능력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능력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젖소의 수명이 짧은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2년이 지나야지만 처음으로 젖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1~2년 검정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적에 의해서 선발, 도태되어서 거기에다 또 좋은 종모우를 선발해서 계획교배 해야지만 차세대에 개량도니 송아지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도 고능력우의 후손이 2번 3번 새끼 낳다보면은 중간에서 병으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도태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검정의 통계를 보며는 평균이 3산입니다. 새끼 3번 낳고나서는 도중에 요절하는 이런 상황을 왕왕보고있는데 흔히 말하기를 학자님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씀은 소는 5산소부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히 성숙된 성우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제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도 도중에 요절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낙농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도 엄청난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여년동안에 낙농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몇가지 낙농을 경영하는데 지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연산장수, 해마다 새끼를 낳도록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이러한 경제동물로써 우리가 목표를 두고 경영을 해야합니다. 그 내용을 제 경험에 의하면 금년 2월말 현재로서 저희 집에는 5산을 한 소가 3마리가 4만kg이상을 생산한 소가 나왔습니다. 6산을 한 두마리가 6만 5천kg과 5만 7천kg을 생산하고도 지금 건실하게 경제동물 구실을 하고 있는가 하면, 9산한 소가 나이가 10살이 넘었는데 약 5만 5천kg의 젖을 내면서 뱃속에 10번째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연산이라하는 것, 장수라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동물 젖소로써 키우기까지에는 4~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불과 2~3년 능력발휘하다고 도중에 요절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장수하면서 계속 새끼를 낳아줄 수 있는 소라면 개인이나 국가에게 경영상 굉장히 보탬이 많은 이런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장수라 하는 것에 우리 낙농가들은 특히 규모가 부업형태를 벗어나자 못하고 있는 약 80%이상의 40두미만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더더구나 경영의 지침으로 야만 됩니다.

이렇다 보면은 숫자상으로 늘리기보다는 숫자는 적다하더라도 고능력화된 소, 다시말해서 소수정회화된 이런 젖소의 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영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정회화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평균의 약배이상을 산유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고능력우를 한마리 키우는 것이 평균적인 전국 평균적인 5천kg대에 소 3마리 키우는 것보다 실질적인 조수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일째 : 개량의 기본원리

어제 이어서 우리나라농가에 특히 부업농가의 경영에 하나의 목표랄까 연산장수, 소수정회화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결론적으로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경영에 내실을 기한다할 것 같은면은 결과적으로 감수증익, 규모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올릴 수 있는 감수증익이라는 농가의 바람직한 경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감수증익이라는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말씀합니다만 실제 대동물 젖소와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목표에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겹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숫자를 늘리기 이전에 소수정회화에서 처음부터 등록하여 혈통을 파악하고, 심사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근친 되지 않고 보다 우수한 차세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차세대 젖소의 능력을 검정해서 또 거기에서 선발, 도태에 가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슈퍼카

우, 고능력화해서 개체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소수정회화된 결론적으로 감수증익이라는 우리가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정우의 고능력화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제 경험이나 실제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볼적에 적어도 5~6년이상 10년이상 지나지 않으면은 바람직한 결과가 내 주먹안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등록을 한다 하면 등록만 하면은 금방 우리에게 어떤 plus요인의 소득증가가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만은 서두에서 밀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등록된 소가 젖소로써 평생동안 충분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농가에게 바람직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로서 클 수 있느냐에 하나의 선형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점이 나오는 부위는 계획적인 종모우를 추천받아가지고 계획교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보다 개량된 차세대 소를 키워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때 산유능력검정을 또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선발, 도태를 해서 이와같이 멀고도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젖소의 고능력화는 도달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체제에 우리 농가로서는 지금 규모확대라 하는 아주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설의 확충과 규모확대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으로는 그것 이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수의

적소를 정회화해서 연산장수의 수명이 긴 경제 동물로써 감수증익이라는 우리농가에게 생활해서 피부로 직접 닿을 수 있는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시설확대라든지 규모확대의 길로써 발전해 나가서 전업농 또는 기업농으로써 발돋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낙농가의 자세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째 : 당국의 배려가 있기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말씀드린 것에 총정리겸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당국에도 부탁말씀을 몇가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선형심사 요원을 외국에 파견해서 많은 능력자들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셔야하겠다는 부탁말씀과 능력검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농가들이 요청할 적마다 아무때고 당국에서는 능력검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정비해 주시는 것이 다른 지원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부탁말씀은 우리나라에 수없는 축산기자재가 생산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축산기자재협회의 통계에 의하면은 약 3천 5백여개의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3천 5백여개의 업체에서 연간 170여종에 축산기자재가 생산되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것이 회사마다 공장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또, 기술지원받고 있는 외국의 회사마다 전혀 달라서 일선에서

우리가 이 기자재를 구입해서 낙농계 직접 편리를 도모하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합니다만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곤란한 지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산 기계는 갑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계를 샀는데 그 기자재, 부속이나 기자재는 다른 회사 것을 공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축산기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규격이 일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게 축산기자재의 규격화를 거듭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많은 자금의 협조가 있으셔서 보조가 있고 용자가 있고해서 특히 대규모의 낙농농가의 시설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농가에 가보더라도 시설의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자재들을 공급해주었던 회사나름대로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낙농가들은 참고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 사후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선낙농가들의 고충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또 한가지 부탁말씀은 이런 축산시설에 어떤 모형화에 있지 않아가지고는 일선 낙농가들은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견고하게 만든 시설을 한번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쉽사리 버리고 새롭게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금이 많이 드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좁다하지만 기후적으로 남북이 다르고 동서가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창을 동으로 나누냐 서로 나누냐 어떤 식으

로 해야되느냐 아주 세세한 어려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도별 또는 지역별 어떤 모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해서 모형화가 이루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이렇게 절박한 사정입니다. 때문에 하루속히 당국에서는 시설에 축산시설에 모형화를 서둘러 주십사하는 것이 일선양축가의 입장에서 대변드리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다보면 전국의 80%의 40두미만의 소규모의 낙농가들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셔서 한가지 한가지 잡고

넘어가셔서 완벽하게 오래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써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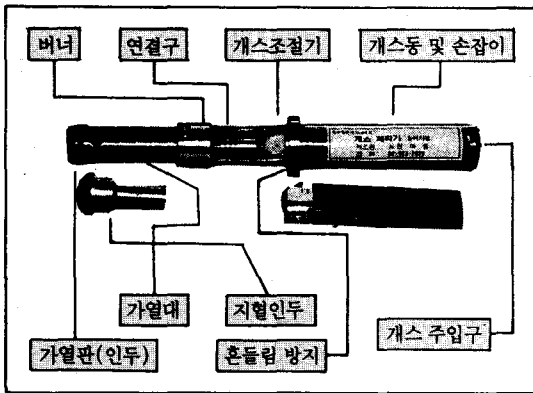
적어도 축산시설이라는 것을 한번 시설하면 당대는 써야만이 투자의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했을 적에 아무리 당국에서 지원이 많다하더라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것이 일선에서 같이 겪고 있는 낙농가의 하나의 호소이면서 하나의 부탁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취재 : 김성수〉

신상품

가스 제각기 (송아지용)

특허출원 제 21489호



■ 기구특성

1. 사용년한이 반영구적이다. (라이타 가스 재충전함)
2. 작업방법이 용이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3. 송아지 뿔이 1cm 정도 자랄때 까지 사용한다. (적기 1개월령)
4. 뿔나는 부위(생장점)만 지져주므로 출혈도 없고 구멍도 뚫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5. 가열후 2~3분후에 작업할 수 있다. (600℃)

6.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7. 큰뿔 자른후 지혈인두로 교체 사용할 수 있다. (지혈인두포함가격 6만원)

■ 사용방법

가스 주입구에 라이타 가스를 주입(1회 주입으로 5두 이상 제각)한 후 가스조절기를 열어서 가열대에 불을 붙임. 약 2분후 인두가 600℃ 정도가 된 후 사용함. 지혈인두 사용시는 제각인두를 빼고 그 자리에 조립하여 사용함.

■ 신청방법

온라인 은행구좌에 입금후 물품발송
(입금후 전화요망)

온라인 계좌 : 우체국 : 011809-0195128-12
축협 : 044-13-12799-516
예금인 : 이 양 선

■ 연락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송인 2동 685 (2층)
전화 : (02) 923-7878 (오후 1시~9시)
922-8013(오전)

공급사 : 한아름사